

부모, 또래, 교사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국 조선족과 한국 아동 및 청소년 비교*

Parents', Peers', and Teachers' Influence on the Self-concept of
Korean-Chinese and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연구소
연구원 이 사 라
울산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 수 박 혜 원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 Hee University

Researcher : Sarah Lee

Dept. Child & Family Welfare, Ul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Hyewon Park-Choi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결 과

IV. 논 의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influential factors on adolescent's (10-16 years of age) self-concept in Korean-Chinese and Korean cultures. The influence of parenting, peer relationship, and teacher's support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and adolescent's self-concept was assessed with Korean-Chinese and Korea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210 Korean-Chinese children and 300 Korean-Chinese adolescents from Shenyang, China, and 280 Korean children and 400 Korean adolescents from Seoul and Ulsan, Korea. Data were analyzed by t-test,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revealed differential influences of factors between the two cultures. Korean-Chinese children's self-concepts were influenced by teacher's support and parenting, while Korean children's self-concepts were

Corresponding Author: Hyewon Park-Choi,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lsan National University, 37-308 Mookeo-2dong
Nangju Ulsan-city, Korea Tel: 82-52-259-2367 Fax: 82-52-259-2888 E-mail: hyewonc@ulsan.ac.kr

* 본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HM2001).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ir peer relationships and teacher's support. Korean-Chinese adolescent's self-concepts were influenced by teacher's support and parenting, while Korean adolescent's self-concepts were influenced by parenting and teacher's support.

주제어(Key Words): 자아개념(self-concept), 부모의 양육행동(parenting),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 교사의 지지(teacher's support)

1. 서론

일찍이 사회학자 Cooley(1902)와 Mead(1934)는 자아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발달하며 일생 동안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하였다. Shaffer(2000)도 자아개념은 출생 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달해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자아개념은 주어진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설명하고 자신에 대한 인상이나 감정 그리고 태도를 조직하는 하나의 도식(schema)을 세우는 시도라고 간주할 수 있다.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과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은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신미희, 1989; Felker, 1995). 의미 있는 타인이란 아동에게 중요한 사람이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덜어주거나 더해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그의 무기력함을 덜어주거나 더해주는 사람, 그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켜 주거나 감소시켜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을 말한다(이사라, 2001; Marsh, 1990). 아동들은 사회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비추어진 자기모습과 이미 지니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종합하여,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개인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조정해 나가게 된다(박성연, 1996). 따라서 아동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 변인들 중에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있는 타인은 중요한 환경의 장이 되는 가정과 학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부모와 또래 그리고 교사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에 정보와 피드백을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의된 사실이다(Hay &

Ashman, 2003).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박수경, 1992; 박영애, 1995; 이정순, 1991; Coopersmith, 1967; Harter, 1999; Ryan & Adams, 1999)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왔다. 부모의 정서적인 보호가 긍정적인 자아개념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 했을 때 자녀들이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여주고(Rosenberg, 1963), 너무 엄격하고 비판적인 부모는 자녀가 성숙한 자아개념에 도달하는데 방해가 된다(Washburn, 1962)고 밝혀졌다. 게다가, 부모의 지지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한 개인의 학업성취와 심리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보고되었다(Midgett, Ryan, Adams, & Corville-Smith, 2002).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부모가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환경적 변인임을 나타내준다.

아동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타인 중의 한 집단으로서 또래를 또한 들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또래 집단과 잘 어울리고 관계가 좋을수록 아동의 자아개념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양원경, 1999; 이사라, 박성연, 2001; 최미경, 2000).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문헌의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에서 또래와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거나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아동일수록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Bernt, 1979; Piaget, 1977). 특히, 외국의 선행연구결과(McGuire, 1983)는 또래집단이 청소년기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부모와 또래가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일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부모와 또래가 다른 요인들보다 아동기 초기와 중기 동안 자

아개념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으며(Feiring & Taska, 1996), 청소년기 전기에도 일반적인 자아개념(전반적인 자기가치감과 자신에 대한 확신)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이다(Hattie, 1992). 즉 아동과 청소년이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 부모와 또래의 영향력이 모두 유의미하게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 두 요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비교되지 않았다(Armsden & Greenberg, 1987; Cotterell, 1992; Fulgini & Eccles, 1993).

청소년기의 사회화에서 부모와 또래의 상대적 역할과 관련하여 부모의 영향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비록 부모와 또래 모두가 청년기 사회화 과정에 파트너로서 기능하지만 청소년기 개별화라고 부르는 과정은 부모로부터 또래로 정서적인 애착대상이 점진적으로 전환해 가는 것으로 본다(Grotevant, 1998).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여전히 자신의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관계는 연결되어 있는 채, 좀더 모험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친구들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개별화 단계 동안, 부모는 조언자의 역할과 정서적 경제적 지지자로서 여전히 남아 있고,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과 자아개념형성에 중요한 참조자(reference)로서 부모를 사용한다(Hay & Ashman, 2003).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기 자아개념 발달에서 또래관계보다 좀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Brown & Huang, 1995; Dekovic & Meeus, 1997; Raja et al., 1991; Wilks, 1986). 예로 부모와 강한 애착이 형성된 청소년들은 높은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 있다(Armsden & Greenberg, 1987; Blyth & Traegar, 1988; McCormick & Kennedy, 1994; O'Koon, 1997). 이들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청소년-부모관계를 경험했던 청소년들은 20년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성인기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하며 청소년기 자아개념의 발달에도 부모의 영향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Roberts & Bengston, 1996).

반면 몇몇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동안, 자아개념발

달에 부모보다는 또래가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ulgini & Eccles, 1993; Kaplan, 1996). 청소년기의 사회화는 부모세대의 문화에 경쟁하는 동시에 자신의 속한 젊은 세대 문화의 가치, 규범, 그리고 부모세대와 구별되는 취향이 지배적임을 강조하는 의견이다(Gecas & Seff, 1990). 5-6세부터 아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과 또래를 비교하며 사회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경향은 아동기동안 점차 증가하여 자존감(self-esteem)형성에도 기여한다(Pomerantz, Ruble, Frey, & Grenlich, 1995). 이러한 경쟁과 비교와 밀접한 또래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집단주의 사회보다는 서구와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로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는 협조와 집단 활동이 강조되기 때문에 자존감에 미치는 또래의 영향이나 또래비교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Butler & Ruzany, 1993). 따라서 또래의 영향은 청소년기로 갈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home, & Michaelieu, 1996).

그 외에도 특히 아동기 아동에게는 부모나 또래 외에 교사가 사회화와 자아개념형성에 중요하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Good과 Weinstein(1986)은 학교는 발달의 최고 형성기동안에 아동이 자신과 그리고 능력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하는 다양한 능력을 발달시키거나 발달시키지 못하는 곳, 또래와의 우정이 길러지는 곳,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보는 곳으로 정의하였다(김동일, 김신호, 이근재, 정일호, 정종진, 2002). 따라서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사회적 문제해결, 지도력의 확립은 그 자체로서 혹은 성공적인 교육적 학습에 있어서의 토대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아동의 자아개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에서의 주된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은 교사인데, 이러한 교사의 긍정적인 반응은 아동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유재련, 1986). 또한 Walsh(1984)는 교사의 긍정적인 기대가 초등학교 어린이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가 아동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아동의 실행능력에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학업성취

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는 아동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 아동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해 생각하는 것 사이에 밀접한 상관성이 있으며, 아동의 자아의식 발달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김훈숙, 2000).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에 대해 Hoge, Smit와 Hanson(1990)은 322명의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수업이 흥미롭고 교사가 잘 보살펴준다는 느낌, 그리고 교사의 적절한 피드백과 평가는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격려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핵심요소로 기능하는데(김동일 외, 2002), 교사는 격려를 통해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아동들과의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수업실제를 통해서 아동을 격려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종진, 1998). 또한, Hay와 Ashman 그리고 van Kraayenoord(1997)는 자아개념 발달이 교실에서 교사와 또래의 피드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Hay & Ashman, 2003).

현재 우리나라는 오랜 분단의 벽 속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기성세대가 되어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화적 이질감과 단절감을 상쇄시키고 남북한의 분단의 장벽을 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중국 조선족은 한국과 북한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중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이라는 커다란 생태학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조선족들의 사회적 발달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 민족이면서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자아개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아개념의 발달에 이러한 환경적 변인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중국 조선족의 사회적 정서발달에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에 이상적인 연구대상이 되는 집단은 해외에 이주한 민족 집단이다. 한민족이면서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문화 체계에서 살고 있는 경우로 중국 조선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중국 조선족은 주로 동북삼성이라 불리는 길림성(약 118만명), 흑룡강성(약 45만명), 요녕성(약 23만명)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해외 동포 중 가장 큰 집단이다. 최근 이 조선족 사회가 발달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급격한 인구이동으로 조선족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조선족 학교 및 학생수의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모국어 상실에 대한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허청선, 이광호, 1995). 무엇보다도 부모가 한국 등 해외취업 등으로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이 빈번하며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의 정체감형성, 적응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조복희, 이귀옥, 박혜원, 이진숙, 한세영, 2004). 요녕성 성도인 심양시에는 조선족이 20만명 이상 집단 거주하고 있는데, 중국의 한족과 함께 거주하는 소수민족이면서도 조선족 학교교육과 전통문화를 비교적 잘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도 최근 다른 조선족 사회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다. 인구 680만의 중국 최대의 중공업도시이며, 한국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지역인 심양은, 중국 개혁과 산업화의 물결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보면서 중국 사회로의 진출을 위해 민족 공동체의 붕괴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 사회와 아동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증대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인 연구는 연구수행과 협조확보의 어려움으로 수행되기 어려웠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국 심양 조선족과 한국의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자아개념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중국 심양 조선족과 한국의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인 부모, 또래, 교사의 영향력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중국 조선족

조사 대상은 중국 심양 요녕성에 위치한 초등학교 4학년과 그들의 부모 210명, 중학교 1학년과 부모 150명, 고등학교 2학년과 부모 150명으로 총 510명이었다. 학교 교사를 통해 배부한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98.1%(N=206, 남: 93명, 여: 113명)의 수거율을 보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85.3%(N=256, 남: 118명, 여: 138명)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부모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1.4세였고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8.5세였고, 중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2.5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9.3세, 고등학교의 경우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4.2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0.1세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아버지는 고졸(45.1%), 대졸(20.9%), 중졸(18.6%)이었고, 어머니는 고졸(52.3%), 중졸(19.3%), 대졸(13.9%)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교의 경우 아버지는 고졸(55.2%), 대졸(21.8%), 중졸(11.5%)이었고 어머니는 고졸(51.2%), 중졸(17.3%), 대졸(12.5%)이었다. 이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000-3000위안(한화로 환산 시 대략, 25만 6천원-38만 4천원) 미만(23.3%)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한국

한국 자료는 중국 요녕성 성도이고 공업 대도시인 심양과 비교할 수 있는 서울과 울산에서, 초등학교 4학년과 부모 280명, 중학교 1학년과 부모 200명, 고등학교 2학년과 부모 200명, 총 68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수집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87.1%(N=244, 남: 128명, 여: 116명)의 회수율을 보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92%(N=368, 남: 195명, 여: 173명)의 회수율을 보였다. 부모의 평균연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아버지는 42.6세, 어머니는 39.8세였고, 중학생의 경우 아버지는 43.5세, 어머니는 40.2세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아버지는 44.7세,

어머니는 41.8세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아버지는 고졸(40.1%), 대졸(30.9%), 전문대졸(18.6%)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고졸(55.3%), 대졸(18.4%), 중졸(12.5%)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교의 경우 아버지는 고졸(46.8%), 대졸(25.8%), 전문대졸(9.3%)의 순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고졸(66.2%), 대졸(11.8%), 중졸(11.3%)로 나타났다. 이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00-300 만원 미만(33.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자아개념

자아개념의 측정도구로 Harter(1988)의 청소년용 자기-지각 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용 자기-지각 검사는 총 4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개 영역(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능력, 외모, 전반적 자기가치감(이하 자아가치감), 우정, 직업능력, 낭만적 매력, 행동)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5 문항을 요인분석 한 후 신뢰도가 높은 5개 하위영역을 선별하여 총 35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선별된 요인은 학업, 운동, 외모, 자기가치감, 행동 자아개념이다.

각 요인을 살펴보면, 학업 자아개념은 학업수행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며, 자신이 학교 수업시간에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학교 숙제를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학교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동 자아개념은 자신이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새로운 경기를 잘 하는지 등을 측정한다. 외모 자아개념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지, 몸매가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등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으며, 자기가치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활방식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측정하였다. 행동 자아개념은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언제나 그렇다”까지 1점부터 5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개념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alpha = .52 \sim .79$ 이었다¹⁾.

2)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조복희 등(2001)의 아동발달 백서를 참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문항을 만들었으며, 이에 대해 부모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양육태도에 관한 문항은 총 7개로 각각 온정성 3문항, 통제성 4문항으로 구분되는데 각 문항은 1~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통제적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문항 내용은 나는 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야기를 나누는지, 내 아이에게 다정하게 대하는지, 내 아이에게 정해진 규칙은 꼭 지키도록 하는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51 \sim .70$ 로 나타났다²⁾.

3) 또래관계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자은(2000)이 사용한 사회적지지 문항 중에서 또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4문항을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학생들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4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친밀성 2문항과 수용성 2문항으로 구분되었다. 문항 내용은 친구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지, 친구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친밀하게 느껴지는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부터 5점까지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래관계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52 \sim .69$ 이었다³⁾.

4) 교사와의 관계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와의 관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기 위해 Hare(1985)의

자아존중감문항(Hare Self-Esteem Scale: HSS)중에서 학업자아개념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학생들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중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7문항을 선별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교사의 지지 5문항과 교사의 평가에 대한 2문항으로 구분되었다. 문항내용은 담임선생님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주는지, 선생님이 편안하고 친밀하게 느껴지는지, 선생님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시는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을 나타내었다.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45 \sim .76$ 으로 나타났다⁴⁾.

3. 조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2003년 12월 초에 중국 심양에 있는 서탑, 만용 소학교와 중고등학교로 질문지를 보냈다. 그곳의 대부분 학생들은 한국어를 제 1국어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항은 한국어로 기록되었다. 질문지는 조선족 소학교 학생과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배부되어 학교교사의 지도하에 완성하도록 하였고, 그들 부모에게도 설문지를 학생들 편에 배부하여 부모가 설문지에 응답한 후 다시 학교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연구자들은 2003년

- 1) 요인분석결과 각 요인별 Cronbach' α 계수는, 중국심양조선족소학교의 경우, 학업 .55, 운동 .64, 외모 .68, 자기가치감 .79, 행동 .61 이었고, 한국초등학교의 경우, 학업 .58, 운동 .52, 외모 .70, 자기가치감 .72, 행동 .56 이었다.
- 2) 요인분석결과 각 요인별 Cronbach' α 계수는, 중국 심양조선족소학교의 경우, 온정성 .57 통제성 .70 이었고, 한국초등학교의 경우, 온정성 .57, 통제성 .51 이었다.
- 3) 요인분석결과 각 요인별 Cronbach' α 계수는, 중국 심양조선족 소학교의 경우, 친밀성 .64 수용성 .52 이었고, 한국 초등학교의 경우, 친밀성 .66, 수용성 .69이었다.
- 4) 요인분석결과 각 요인별 Cronbach' α 계수는, 중국 심양조선족 소학교의 경우, 교사의 지지 .72, 교사의 평가 .76 이었고, 한국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의 지지 .75 교사의 평가 .45이었다.

12월 중국 심양을 방문해 완성된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한국자료도 같은 시기에 서울과 울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집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PC+Vers. 11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각각의 의미있는 영역으로 문항을 구분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자아개념은 총 5개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2개 요인으로, 또래관계는 2개 요인으로, 교사와의 관계는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중국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 및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을 비교하기 위해 t 검증을 시행하였다. 또한, 자아개념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들, 즉,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 교사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II. 결과

1. 중국 심양 조선족과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아개념비교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자아개념의 하위요

인에 대하여 두 집단자료를 비교하였다. 먼저, 중국 심양 조선족 소학교학생과 한국 초등학교 학생의 하위요인별 자아개념에 대해 t 검증을 시행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모자아개념과 행동자아개념에서는 중국 심양 조선족 소학교 학생과 한국 초등학교 학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운동자아개념과 학업자아개념 및 자기가치감에서는 중국 심양 조선족 소학교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한국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의 하위요인별 자아개념에 대해 t 검증을 시행하였는데⁵⁾, 그 결과, 학업자아개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아개념 차원에서 중국 심양 조선족과 한국학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외모자아개념, 운동자아개념, 행동자아개념, 그리고 자기가치감에서 중국 심양 조선족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한국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비교한 결과 <표 1>에서 어린 학생보다 나이는 학생집단의 자아개념은 낮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심양조선족 학생은 운동, 학업, 자기가치감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학생은

5) 중국조선족 경우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의 표집수가 작아서 함께 분석하였다.

<표 1> 중국 심양 조선족과 한국 초등학교 학생 및 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아개념 비교

변 인		초등학교 학생				중고등학교 학생				t
		N	M	SD	t	N	M	SD	t	
외모자아개념	심양조선족	165	3.31	.87	1.68	223	3.28	.69	9.59***	.50
	한 국	238	3.16	.84		328	2.87	.68	6.07***	
운동자아개념	심양조선족	173	3.38	.83	5.29***	237	3.11	.74	4.33***	4.01***
	한 국	239	2.99	.78		329	2.91	.80	1.51	
학업자아개념	심양조선족	173	3.49	.85	5.49***	235	3.23	.69	-.28	45.37***
	한 국	238	3.21	.59		325	3.24	.73	-.62	
행동자아개념	심양조선족	174	3.45	.81	0.30	247	3.39	.47	8.63***	1.14
	한 국	246	3.47	.67		336	3.16	.43	8.78***	
자기가치감	심양조선족	161	3.64	.75	2.60*	231	3.30	.58	15.34***	6.05***
	한 국	227	3.47	.65		327	2.74	.64	16.67***	

*p<.05, **p<.01, ***p<.001

주) t는 조선족과 한국 학생들을 비교한 값이고, t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비교한 값임.

외모, 행동, 자기가치감에서 초등학교 때보다 중등학교 때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사이에 자아개념의 저하현상은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실이다(Erikson, 1963; Lerner, Iwawaki, Chihara, & Sorell, 1980; Rosenberg, 1979; Simmons, Blyth, Van Cleave, Bush, 1979). 그러나 한국 집단에서는 특히 이러한 연령에 따른 자아개념 저하현상이 더욱 뚜렷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중국 심양 조선족 소학교 학생과 한국 초등학교의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부모, 또래, 교사의 상대적인 영향력

1) 중국 심양 조선족 소학교 학생의 자아개념에서의 부모, 또래, 교사의 영향

중국 심양 조선족 소학교 학생 자아개념에서의 부모, 또래, 교사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자아개념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그중 신뢰도가 괜찮은 5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 관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들도 요인 분석하여 각각 2개씩의 요인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자아개념에서의 부모, 또래, 교사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중국 심양 조선족 소학교학생의 경우, 외모, 운동, 학업, 행동, 자기가치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모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의 지지($\beta=25, p<.01$)로 나타났고, 운동자아개념, 자기가치감에서도 교사의

지지($\beta=21, p<.05, \beta=29, p<.01$)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자아개념은 교사의 지지($\beta=.38, p<.001$)와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beta=.32, p<.001$)가 영향을 주고 있었고, 행동자아개념에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beta=.22, p<.001$)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양 소학교 아동의 외모, 운동, 학업, 전반적 자기 가치감은 교사가 지지적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과 행동자아개념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일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개념에서의 부모, 또래, 교사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한국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도, 외모, 운동, 학업, 행동, 자기가치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모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의 지지($\beta=.18, p<.01$)로 나타났고, 운동자아개념은 또래와 친밀함($\beta=.33, p<.001$)으로 나타났다. 학업자아개념은 또래와 친밀함($\beta=.22, p<.01$)과 교사의 지지($\beta=.15, p<.05$)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가치감은 교사의 지지($\beta=.25, p<.01$)와 또래와 친밀함($\beta=.15, p<.05$)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행동자아개념은 교사의 평가($\beta=.16, p<.05$)와 또래와 친밀함($\beta=.14, p<.05$)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초등학교 학생의 운동, 학업, 전반적 자기 가치감, 행동 자아개념은 또래와 친밀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 학업, 자기가치감과 행동자아개념에서는 교사의 지지와 평가가 긍정적일수

<표 2> 중국 심양 조선족 소학교 학생의 자아개념 하위요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Method = Stepwise)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β	R ²	ΔR	F
외모자아개념(N=126)	교사의 지지	.30	.25**	.06	.06	7.36**
운동자아개념(N=134)	교사의 지지	.29	.21*	.05	.05	5.50*
학업자아개념(N=132)	교사의 지지	.54	.38***	.28	.10	22.01***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77	.32***			
행동자아개념(N=134)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47	.26**	.07	.07	8.35**
자기가치감(N=124)	교사의 지지	.29	.29**	.09	.09	10.19**

* $p<.05$, ** $p<.01$, *** $p<.001$

〈표 3〉 한국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하위요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Method = Stepwise)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ΔR	F
외모자아개념(N=265)	교사의 지지	.19	.18**	.03	.03	7.36**
운동자아개념(N=264)	또래와 친밀함	.25	.33***	.11	.11	26.27***
학업자아개념(N=268)	또래와 친밀함	.14	.22**	.11	.02	13.0***
	교사의 지지	.12	.15*			
행동자아개념(N=272)	교사의 평가	.15	.16*	.06	.02	7.21**
	또래수용성	.13	.14*			
자기가치감(N=257)	교사의 지지	.20	.25**	.12	.02	15.07***
	또래와 친밀함	.10	.15*			

*p<.05, **p<.01, ***p<.001

록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중국 심양 조선족과 한국 중·고등학생 자아개념에서의 부모, 또래, 교사의 영향은 어떠한가?

중국 심양 조선족과 한국 중·고등학생 자아개념에서의 부모, 또래, 교사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중국 심양 조선족 중·고등학생의 경우, 외모, 운동, 학업, 행동, 자기가치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모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의 지지($\beta=.33, p<.001$)와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beta=.18, p<.05$)로 나타났고, 운동자

아개념은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beta=.26, p<.05$)로 나타났다. 학업자아개념에서는 교사의 지지($\beta=.17, p<.05$)와 또래 수용성($\beta=.17, p<.05$)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자아개념에서는 교사의 지지($\beta=.30, p<.001$)와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beta=.08, p<.05$)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기가치감에서는 교사의 지지($\beta=.22, p<.01$)와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beta=.19, p<.05$)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 심양 조선족 중·고등학교 학생의 외모, 운동, 학업, 전반적 자기가치감은 교사가 지지적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과 행동자아개념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일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아개념 분석

〈표 4〉 중국 심양 조선족 중·고등학생의 자아개념 하위요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Method = Stepwise)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ΔR	F
외모자아개념(N=128)	교사의 지지	.36	.33***	.15	.03	11.38***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29	.18*			
운동자아개념(N=134)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26	.17*	.03	.03	4.07*
학업자아개념(N=145)	교사의 지지	.17	.17*	.07	.03	4.97**
	또래 수용성	.18	.17*			
행동자아개념(N=143)	교사의 지지	.22	.30***	.11	.03	8.71***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	.17	.08*			
자기가치감(N=142)	교사의 지지	.21	.22**	.09	.04	6.60**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25	.19*			

*p<.05, **p<.01, ***p<.001

〈표 5〉 한국 중·고등학생의 자아개념 하위요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종다회귀분석 결과

(Method = Stepwise)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ΔR	F
외모자아개념(N=309)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	.36	.21***	.11	.04	17.88***
	교사의 지지	.19	.20***			
학업자아개념(N=326)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	.36	.21***	.07	.02	12.98***
	교사의 지지	.13	.14*			
행동자아개념(N=306)	교사의 지지	.10	.21*	.06	.02	6.51***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	.15	.15**			
	또래수용성	.08	.14*			
자기가치감(N=310)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	.28	.24***	.10	.04	17.35***
	교사의 지지	.30	.19**			

*p<.05, **p<.01, ***p<.001

결과, 〈표 5〉에 따르면, 외모, 학업, 행동, 자기가치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운동자아개념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모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beta=.21$, $p<.001$)과 교사의 지지($\beta=.20$, $p<.001$)로 나타났고, 학업자아개념은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beta=.21$, $p<.001$)과 교사의 지지($\beta=.14$, $p<.05$)로 나타났다. 행동자아개념은 또래 수용성($\beta=.14$, $p<.05$)과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beta=.15$, $p<.01$), 그리고 교사의 지지($\beta=.21$, $p<.05$)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가치감은 교사의 지지($\beta=.24$, $p<.001$)와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beta=.19$, $p<.01$)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의 외모, 학업 자아개념, 전반적 자기가치감은 부모가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교사가 지지적 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자아개념에서는 교사의 지지,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 또래수용성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중국 심양 조선족과 한국의 초·중·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두 나라 간 학생들의 자아개념을 비교하고, 자아개념 발달에 부모와 또래, 그리고 교사의 영향이 국가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자아개념 발달이 문화와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심양 조선족과 한국 초등학생들의 자아개념을 비교한 결과, 외모자아개념과 행동자아개념에서는 중국 심양 조선족과 한국 초등학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운동자아개념과 학업자아개념, 그리고 전반적인 자기가치감에서는 중국 심양 조선족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한국 초등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아개념 비교 결과, 중국 심양조선족 중·고등학교학생이 학업을 제외한 외모, 운동, 행동 자아개념과 자기가치감에서 한국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중국 조선족의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1가정 1자녀 정책과 관련 있어 보이는데, 1980년 이후 인구 억제를 위해 1자녀 출산을 법제화한 중국에서는 이로 인해 아동의 지위가 급격히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 대륙의 13억 인구 가운데 92%가 한족이며 나머지 8%가량이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중국에서는 소수민족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셋째자녀부터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으로 정하여 소수민족 자녀출산을 장려하고 있

는 것도 중국 본토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아동의 지위상승요인으로 볼 수 있다(임계순, 2003). 한편, 중국 조선족 아동 및 청소년이 한국 학생들에 비해 자아개념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다른 한 가지 가능성으로는, 중국 조선족 학생들은 자기표현이 보다 자유로운 한국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솔직한 생각보다는 '바람직성'에 맞추어 응답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단계 선별과정이 가능한 중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한국은 대학 입시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교육적 여건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는 특히 학업성적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곧 그 학생의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학업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잘하는 능력을 보이더라도 그 아동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모의 영향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한국 사회의 발전과 경제적인 여유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와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왜곡된 평가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형성하게 되는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같은 영향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아개념을 더욱 더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박혜원, 이사라, 2004). 중국 조선족과 한국 중·고등학생 자아개념 평균점수의 격차가 초등학교 때보다 더 커진 것은 한국 학생이 경험하게 되는 대학 입시와 학력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시 되는 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자아개념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의 문화가 차이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발달함에 따라 자아개념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의 차이는 한국 학생들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 두 국가간 차이는 중고등 학생집단에서 더욱 뚜렷하였다. 다만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도 학

업에 대한 압력은 상당히 커지는 듯 학업 자아개념의 국가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중국 심양 소학교 학생들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교사와 부모 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한국 초등학생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교사와 또래 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 교사가 학교상황에서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지한 선행 연구들(Davidson & Lang, 1960; Hoge, Smith & Hanson, 1990; Marsh, 1990; Shavelson & Bolus, 1982; Staines, 1958; Woolfolk, 1995)과 부모가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지한 연구결과들(김희경, 1990; 도현심, 최미경, 1998; 임선화, 1988; Lamborn et al., 1991; Rosenberg, 1985)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부터 교사는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부모가 자아개념발달에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와는 다르게, 한국 초등학생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교사와 또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중국 심양 소학교 학생들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한국 초등학생들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변인 중에 부모보다는 또래와 교사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선행되어 왔던 자아개념연구결과(Hay & Ashman, 2003; Marsh, 1990)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서구문화에서 연구되어온 자아개념발달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은 초기에 부모나 가족구성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점차 성장해감에 따라 친구나 학교 또래들 그리고 교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Harter, 1990)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초등학생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은 부모이외의 다른 환경적 변인-또래 또는 교사-들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을(김훈숙, 이경옥, 2000; 이사라, 박성연, 2001)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조선족과 한국을 대비한 것으로 집단주의 국가에서보다는 한국과 같은 경쟁과 비교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또래의 영향이 크다는 Butler와 Ruzany(1993)등의 연구와는 일

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내 입시문화와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보고서에 의하면(동아일보, 2004. 10. 7), "한국 아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명문대 입학 을 위한 노력을 강요받고 있다. 한국 부모들은 3세 이상 유아들에게 읽기, 쓰기, 셈하기 등에 치중한 학습을 시키는 등 '학생'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한국의 입시위주 사회풍토에 대해 지적하였다. 한국 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그나마 약간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데, 그 이유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는 대학입시준비를 위한 '입시생'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오기 전인 초등학교 저학년시기에는 아동들에게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문화에서 나타나는 또래문화의 집단성과 동질성을 고려해볼 때, 아동들이 그들만이 공유하는 문화(예: 인터넷 게임, 만화 캐릭터, 유행하는 놀이문화 등)에 소속되지 않으면 학교생활이나 친구들과의 생활에서 어울리기 어렵기 때문에 또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 집단으로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박혜원, 이사라, 2004). 따라서 한국 초등학생 아동들의 자아개념 발달에 부모보다는 또래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기존의 서양에서 연구되어 온 자아개념 발달 연구자료를 넘어 한국문화의 독특한 또래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 심양 조선족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교사와 부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한국 중·고등학생은,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와 교사의 지지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중국 조선족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때 모두 부모와 교사가 자아개념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에는 또래와 교사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Fulgini & Stevenson, 1995; Fulgini, Tseng & Lam, 1999)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사회는 10대 청소년들이 그들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은 매우 드문 경우로서 청소년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사회로 표현된다. 미국과 유럽 청소년들은 또한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또래와 함께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중국의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의 확대가족(예를 들면, 조부모, 삼촌, 숙모 등과 같은)구성원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말에 따르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 조부모, 부모, 심지어 자기의 형과 누나들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Ho, 1981). 중국가족들은 자녀의 사회화시기에 가족을 존경하고 지지하며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화시기에 부모와 가족에게 도덕적인 순종의 전통을 배우게 되고 이는 성인기와 개인 인생의 전체 삶에서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잡게 된다(Fulgini et al., 2002). 게다가, 가족에 대한 복종의 중요성은 중국 아동과 청소년에게 받아들여져 있고 인식되어져 있다. Fulgini(1999) 등의 연구에서 중국계 미국인 청소년들이 유럽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또래들보다 가족의 지원과 지지의 중요성을 더 믿고 있음이 밝혀졌다. 중국 본토에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 조선족은 이러한 가족중심적인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중국 조선족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부모가 또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지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중·고등학생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부모와 교사라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한국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또래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진 반면,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또래의 영향은 청소년기로 갈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Pomerantz 등(1995) 및 Thorne과 Michaelieu(1996)의 자료와는 상반되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미국 등의 서구사회에 비해 한국사회는 학력이 매우 중요시되는 사회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사회는 자신의 교육적 성취에 의해 자신의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환

경은 더욱 치열하게 대학입시에 매달리게 되고 특히 소위 일류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노력의 경쟁이 매우 심하다. 이러한 한국의 입시경쟁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원과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조장한다(김미숙, 2003).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공부를 위해 스케줄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녀의 모든 시간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부모의 학력이 높고 전문직 부모의 자녀일수록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4. 12. 17).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는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자녀의 대학입시에 가이드를 제시해줌으로써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상황은,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한국 학생의 경우 아동 뿐 아니라 청소년의 자아개념에도 또래보다는 부모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중국 조선족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결과는, 서론에서 보았듯이, 부모와 또래가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에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는 의견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아권 문화에서의 부모와 또래의 역할과 서구문화에서의 부모와 또래 역할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보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사료되는 중국과 한국을 대비하여 두 국가의 차이가 부가되었으나 보다 거시적인 견지에서 살펴볼 때 두 국가 모두 동양의 대표적인 집단주의 국가로서 서양의 자료와 직접적으로 비교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은 중국보다는 보다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자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개인주의 사회의 자료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본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워 심양 한 지역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전체 중국 조선족에 대해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사용된 심양 지역과 한국의 서울 및 울산이라는 지역이 서로 완벽하게 비교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가 대부분 낮게 산출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조선족이 같은 한국민족이면서 중국문화권내에서 살고 있는 집단으로서, 같은 민족이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살고 있을 때 나타나는 아동발달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중국과 한국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중국 조선족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Marsh(1990)는 자아개념의 이론적 구조의 모델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어머니 아버지 각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 단위(unit)로 설명하고 있다. Hay와 Ashman(2003)은 이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과 딸의 정서적 안정성과 자기 가치감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보다는 어머니 아버지 각각에 대해 그 영향을 분석해 보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되는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과 한국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 어머니 영향 각각을 분석해서 서구 문화권과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자아개념의 다른 구조들(예를 들면, 수학적 자아, 언어적 자아, 창의성, 도덕성 등) 각각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환경적 변인들이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환경적 변인의 영향이 연령에 따른 보다 정확한 발달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종단적 연구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

-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일, 김신호, 이근재, 정일호, 정종진(2002). 아동 발달과 학습. 교육출판사.
- 김미숙(2003). 사교육: 한국 중류층의 경쟁과 불안. *교육사회학 연구*, 13(3).
- 김훈숙, 이경옥(2000).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과 부·모·교사의 자아개념 추론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1), 73-83.
- 김희경(199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동아일보. 2004년 10월 7일.
- 동아일보. 2004년 12월 17일.
- 박성연(1996). *인간발달 I - 아동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수경(1992).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및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원, 이사라(2005). 부모, 또래 및 교사가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화적 비교 연구: 한국과 중국 심양 조선족 초등학교 생활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1), 181-194.
- 신미희(1989). 또래관계에서의 인기도와 자아개념 및 사회성숙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원경(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련(1986). 자아개념과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논문집*, 15.
- 이사라(2001).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부모와 또래의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사라, 박성연(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2(4), 17-32.
- 이정순(1991). 어머니의 자아개념과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계순(2003).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현암사.
- 임선화(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종진(1998). 자신감과 자아존중감 키워주기. 대구: 장원교육.
- 조복희, 도현심, 박경자, 박혜원, 이귀옥, 이숙, 이옥, 조성연, 최보가, 현온강, 이경옥, 장유경(2001). *아동발달백서 2001*. 한국아동학회. 한솔교육문화연구원.
- 조복희, 이귀옥, 박혜원, 이진숙, 한세영(2004). 연변 조선족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아동학회지*, 25(3), 127-140.
- 최미경(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아의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청선, 이광호(1995). 중국 조선족 민족교육의 발전 특성과 위기에 대한 재고찰. *한국청소년연구*, 21, 60-80.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 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ernt, T. J.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06-616.
- Blyth, D. & Traegar, C. (1988). Adolescent self-esteem and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s. In S. Salzinger, J. Antrobus & M. Hammer(Eds.), *Social networks of children*,

-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p.171-194). Hillsdale, NJ: Erlbaum.
- Brown, B. B. & Huang, B. (1995). Examining parenting practices in different peer contexts: Implications for adolescent trajectories. In L. J. Crockett & A. C. Crouter(Eds.), *Pathways through adolescence: Individual development in relation to social contexts* (p.151-174). Mahwah, NJ: Erlbaum.
- Brown, B. B., Mounts, N., Lamborn, S.D., & Steinberg, L. (1993). Parenting practices and group affili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4*, 467-482.
- Butler, R. & Ruzany, N. (1993). Age and socialization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arison motives and normative ability assessment in kibutz and urban children. *Child Development, 62*, 532-543.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s.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otterell, J. (1992). The relation of attachments and supports to adolescent well being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 28-42.
- Davidson, H. H. & Long, G. (1960).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teachers feelings towards them related to self perception, school achievement and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29*, 107-118.
- Dekovic, M. & Meeus, W. (1997). Peer relations in adolescence: Effects of parenting and adolescents' self-concept. *Journal of Adolescence, 20*, 163-176.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Norton.
- Fearing, C. & Taska, L. S. (1996). Family self-concept: Ideas on its meaning. In B. A. Bracken(Ed.), *Handbook of self-concept: Development, social and clinical considerations*(p. 317-373). New York: Wiley.
- Felker, D. W. (1995). *Building positive self-concept*. 김기정역. 문음사.
- Fulgini, A. J. & Eccles, J. S. (1993).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early adolescents' orientation towards peers. *Development Psychology, 29*, 622-632.
- Fulgini, A. J. & Stevenson, H. W. (1995). Time-use and mathematics achievement among Chinese, Japanese, and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Child Development, 66*, 830-842.
- Fulgini, A. J., Tseng, V., & Lam, M. (1999). Attitudes toward family obligations among American adolescents with asian, latin american, and european backgrounds. *Child Development, 70*, 1030-1044.
- Fulgini, A. J., Yip, T., & Tseng, V. (2002). The impact of family obligation on the daily activ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nese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3*, 302-314.
- Gecas, V. & Seff, M. A. (1990). Families and adolescents: A review of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41-958.
- Grotevant, H. (1998). Adolescent development in family contexts. In W. Damon & N. Eisenberg(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p 1097-1150). New York: Willy.
- Hare, B. R. (1985). *The Hare general and area-specific(school, peer, and home) self-esteem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Sociology, SUNY Stony Brook, New York.
- Harris (1998). *The nurture assumption: Why children turn out they way they do*. New York: Free Press.
- Harter, S. (1988). The construction and conservation

- of the self: James and Cooley revisited. In D.K. Lapsley & F. C. Power(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New York: Springer-Verlag, 42-70.
- Harter, S. (1990).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LaGreca(Ed.), *Through the eyes of a child*. Boston: Allyn and Bacon.
- Harter, S. (1996). Historical roots of contemporary issues involving self-concept. In B. A. Bracken(Ed.), *Handbook of self-concept: Developmental, social, and clinical considerations*(p. 1-37). New York: Willy.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Press.
- Hattie, J. A. (1992). *Self-concept*. Hillsdale, NJ: Erlbaum.
- Hay, I. & Ashman, A. F. (2003).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emotional stability and general self-concept: the interplay of parents, peers, and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50(1), 2003.
- Hay, I., Ashman, A. F., & van Kraayenoord, C. E. (1997).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achievement on self-concept using an intra-class design and a comparison of the PASS and SDQ-1 self-concept tes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7, 311-321.
- Hilgard, E. R., Atkinson, R. L., & Atkinson, R. C. (1979). *Introduction to psychology*(7th ed).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Ho, D. Y. F. (1981). Traditional patterns of socialization in Chinese society. *Acta Psychologica Taiwanica*, 23, 81-95.
- Hoge, D. R., Smit, E. K., & Hanson, S. L. (1990). School experiences predicting changes in self-esteem of sixth-and seventh-grad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117-126.
- Kaplan, H. B. (1996). Psychosocial stress from the perspective of self-theory. In H. B. Kaplan(Ed.), *Psychosocial stress: Perspectives on structure, theory, life-course, and methods*(p. 175-244).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erner, R. M., Iwawaki, S., Chihara, T., & Sorell, G. T. (1980). Self-concept, self-esteem, and body attitudes among Japanese male and female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1, 847-855.
- Lewin, K. (1936). *Principles of topologic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Marsh, H. W. (1990). A multidimensional, hierarchical model of self-concept: Theoretical and empirical justific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 77-172.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1-18.
- McGuire, W. J. (1983). A contextualist theory of knowledge: Its implications for innovations and reform in psychological research.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6(p.1-47). New York: Academic Press.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dgett, J., Ryan, B. A., Adams, G. R., & Corville-smith, J. (2002). Complicating achievement and self-esteem: Considering the joint effects of child characteristic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7, 132-143.
- O'Koon, J. (1997).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 in late adolescenc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elf-image. *Adolescence*, 32, 471-453.
- Piaget, J. (1977). *The development of thought: Equilibrium of cognitive structures*. New York: Viking.
- Pomerantz, E. M., Ruble, D. N., Frey, K. S., & Grenlich, F. (1995). Meeting goals and confronting conflict: Children's changing perceptions of social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66, 723-738.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1).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471-485.
- Roberts, R. E. L. & Bengston, V. L. (1996). Affective ties to parents in early adulthood and self-esteem across 20 year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9, 96-10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hy(Ed.), *The development of self*(p. 55-121). Orlando, FL: Academic Press.
- Ryan, B. A. & Adams, G. R. (1999). How do families affect children's success in school? *Educational Quarterly Review*, 6, 30-43.
- Shaffer, D. R. (2000)(4th ed.).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Belmont, CA, USA:Wadsworth/Thomson Learning,
- Shavelson, R. J. & Bolus, R. (1982). Self-concept: The interplay of theory and method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to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 Simmons, R. G., Blyth, D. A., Van Cleave, E. F., Bush, D. M. (1979). Entry into early adolescence: The impact of school structure, puberty, and early dating on self-este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948-967.
- Staines, J. W. (1958). Self-pictures as a factor in the classroom.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28(2), 97-111.
- Thorne, A. & Michaelieu, Q. (1996). Situating adolescent gender and self-esteem with personal memories. *Child Development*, 67(1), 1374-1390.
- Washburn, W. C. (1962). The effects of physique and intrafamily tension on self-concepts in adolescent male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6, 460-466.
- Wilks, J. (1986). The relative importance of parents and friends in adolescent decision mak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5, 323-334.
- Woolfolk, A. E. (1995). *Education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2004년 12월 31일 접수, 2005년 3월 10일 채택)

〈부록〉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

심양조선족 소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 온정적양육태도	1										
2. 통제적양육태도	.45**	1									
3. 또래친밀성	.20**	.03	1								
4. 또래수용성	.12	.15*	.11*	1							
5. 교사의지지	.14	.01	.41**	.02	1						
6. 교사의평가	.11	-.19*	.02	.07	.12*	1					
7. 외모자아개념	.05	-.03	.19*	.16	.20*	.05	1				
8. 운동자아개념	.08	-.02	.11	.23*	.20	.23	.23	1			
9. 학업자아개념	.27**	.10	.28**	.21**	.35**	.17*	.42**	.47**	1		
10. 전반적자기가치감	.17*	.03	.22**	.22**	.27**	.11	.69**	.44**	.62**	1	
11. 행동자아개념	.19*	.09	.01	.18*	.14	-.06	.30**	.19*	.50**	.50**	1

한국 초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 온정적양육태도	1										
2. 통제적양육태도	.48**	1									
3. 또래친밀성	.04	.04	1								
4. 또래수용성	.04	-.12*	.27**	1							
5. 교사의지지	.06	.06	.52**	.22**	1						
6. 교사의평가	.04	.16**	.29**	.30**	.22**	1					
7. 외모자아개념	.09	.11	.08	-.07	.15**	-.06	1				
8. 운동자아개념	.04	-.01	.29**	.12*	.17**	.18**	.09	1			
9. 학업자아개념	.05	.08	.29**	-.02	.26**	.16**	.23**	.29**	1		
10. 전반적자기가치감	.05	.08	.24**	-.05	.31**	.07	.65**	.22**	.41**	1	
11. 행동자아개념	.05	.01	.01	-.24**	.03	-.26**	.28**	-.03	.19**	.39**	1

심양조선족 중고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 온정적양육태도	1										
2. 통제적양육태도	.63**	1									
3. 또래친밀성	.09	.07	1								
4. 또래수용성	-.03	-.13	.23**	1							
5. 교사의지지	.08	.00	.28**	.07	1						
6. 교사의평가	.02	.00	.05	.08*	.02	1					
7. 외모자아개념	.25**	.19**	.02	-.13	.33**	.07	1				
8. 운동자아개념	.17*	.07	-.03	-.06	.08	.11	.20**	1			
9. 학업자아개념	.15*	.08	.14	-.19*	.21**	.14	.46**	.14**	1		
10. 전반적자기가치감	.16*	.15*	.03	.03	.05	.17*	.37**	.28**	.21**	1	
11. 행동자아개념	.21**	.12	.19*	.00	.23**	.11	.50**	.22**	.36**	.33**	1

<부록> 계속

한국 중고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 온정적양육태도	1										
2. 통제적양육태도	.46**	1									
3. 또래친밀성	.14**	.14*	1								
4. 또래수용성	-.06	-.09	.40**	1							
5. 교사의지지	.12*	.21**	.24**	.10*	1						
6. 교사의평가	-.06	-.02	.10*	.13*	.22**	1					
7. 외모자아개념	.15**	.24**	.06	-.12**	.23**	.05	1				
8. 운동자아개념	.02	.07	.01	-.05	-.04	.05	.12**	1			
9. 학업자아개념	.13*	.16**	.17**	.07	.10*	.09*	.31**	.07	1		
10. 전반적자기가치감	.18**	.18**	.17**	.04	.18**	.21**	.33**	.14**	.27**	1	
11. 행동자아개념	.13*	.16**	.17**	.07	.10*	.09*	.31**	.07	.26**	.34**	1